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 향기

장흥, 새 물 문화의 자궁



한승원 <소설가>

우주 속의 별들 가운데 오직 지구만이 물을 가지고 있다. 물이 있어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물이 사라진다면 지구 전체는 사막이 된다.

장흥 지도가 바뀌었다

수자원공사는 이 나라가 미래의 물 부족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댐을 거듭 만든다. 그 까닭으로 인해서 내 고향 장흥의 지도가 바뀌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장흥군은 장흥댐의 물을 세상에서 가장 청정한 것이 되도록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 물은 장흥 사람들만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물이 부족한 전라남도 서남부 지방의 도시인 목포, 남악 신도시, 진도·해남·강진 완도·장흥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물이다.

장흥댐의 물은 매우 슬픈 물이다. 수많은 유치면 사람들이 고향을 잃은 채 통곡하며 떠남으로써 장흥의 군세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유치 땅은 임진왜란·동학·한국전쟁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숨어들었다가 처절하게 죽어간 산악지대이다. 한국전쟁 때에 유치 암혈이

골짜기는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였다. 좌익의 파르티잔이 진을 치고 암약한 까닭으로 유치 주민들은 현인할 수 없는 고초를 치렀고, 군경들과 파르티잔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산화되었다.

장흥 댐 속에는 그 슬프고 처절한 역사와 문화가 잠겨 있다. 장흥군은 그 댐으로 말미암아 국가로부터 얼마쯤의 보상을 받았다.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떠났고, 군은 댐 앞부분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게 될 터이다.

그렇지만 그 보상은 수장되어버린 그 땅과 역사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반에 반도 되지 않는다. 그것들의 값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댐은 보상을 미끼로 한 일종의 착취행위인 것이다.

그 댐으로 말미암아 장흥 지방의 생태환경은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안개가 많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고, 작물들이 햇빛을 넉넉하게 받지 못하고 병해를 입게 되었다.

장흥댐 아래쪽의 갈죽기에는 탐진강 특산물인 은어, 메기 따위가 사라졌다. 댐의 물이 고임으로써 보림사의 지반이 침하할 수도 있다. 탐진강 유역 급이급이에 자리 잡고 있는 풍치 수려한 정자들이 물이 없어진으로써 그 운치를 잃었다.

수자원공사가 지불한 보상에는 이와 같은 비가시적인 한스러운 역사와 문화의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흥의 물을 마시게 되는 목포와 남악 신도시와 진도·해남·강진·완도 사람들은 장흥과 고향

을 잃고 떠난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한다. 마신 만큼의 물 값을 물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당당하기만 할 일이 아니고, 영산강의 탁수로 감증을 채우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장흥의 슬픈 물을 고마워해야 한다.

물은 흘러도 아름답고 고여 있어도 아름답다. 물은 산꼭대기에 부어놓으면 밑으로 흘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지하수가 된다. 푸나무와 곡식 속에 흐르고 사람의 목속에 흐른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도 물이고 가장 강한 것도 물이다.

전남 서남부 사람들 양생할 짓줄

슬픈 역사와 문화를 수장시킨 장흥의 물은 이제 수많은 전남의 서남부 사람들을 양생할 짓줄로 거듭나고 있다.

바다를 정복하는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고 했다. 그것은 물을 많이 가진 자가 번영을 누리다는 것이다. 바다는 인류 미래의 희망을 간직한 블랙박스이고 육지의 물은 인간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다. 그 젖줄이 전라남도 서남부 지방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바깥에 풍요로운 특산물 바닷물을 가진 채 내부에 깨끗하고 거대한 방죽물을 가지고 있는 전남 장흥 땅은 품고 있는 넉넉한 물의 양만큼 길어갈수록 흥할 터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월 광주 양대행사 시민관심 더 가져야

다음주부터 광주에서 주목할 만한 두건의 큰 행사가 열린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월드컵 경기장 등 광주시 일원에서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펼쳐지며 15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는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가 3일간 일정으로 개막된다.

6·15 통일대축전은 빛고를 광주가 한 반도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전진기지로서 부각되는 동시에 5·18의 전국화 및 세계화에도 기여하는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역시 평화·인권도시로서의 광주 이미지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화해 물꼬를 트고 광주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들 행사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월드컵 기간과 양대 행사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독일로 쏠리고 있다. 월드컵 열풍과 연계된 상업주의 영향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들 행사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숙박시설과 행사장 점검 등 안전 대책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통일대축전 참석차 광주에 머물게 될 북한 대표단에 대한 의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북한 대표단의 광주 도착 첫 일정은 '말뚝동 국립 5·18 묘지' 참배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일부 이념단체들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주최측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광주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행사기간 동안 광주를 찾은 북한동포와 해외귀민들에게 참된 5월 광주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에 참석할 귀한 손님들을 따뜻이 맞이하자.

F 15K 추락 원인규명 한국 공군이 주도하라

한국공군의 차세대 주력기인 보잉사의 F 15K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추락, 아까운 조종사 2명이 희생된 사건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우선은 우리 공군의 꽃다운 엘리트 조종사들이 숨진데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어린이날 애소 도중 정예 조종사가 사고사 한데 이어 겹친 비운이다.

또한 심각한 것은 도입결정 당시부터 말 많던 F15K의 성능과 안전성이 이번 사고로 인해 또다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군사전문가들은 1990년대 이미 생산이 중단된 보잉사의 F15 기종을 한국 공군이 차세대 주력기로 결정 할 때부터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실패 무자의 고백 등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의혹은 영국등 5개국 컨소시엄의 유로 파이터 2000,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러시아의 수호이 37, 미국 보잉사의 F15 등 4개기종의 경쟁에서 라팔이 최고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는 것

이다. 물론 우리공군은 한미공군 작전체제상 F15가 적절하다는 설명이지만 개운한 설명은 아니었다.

공군은 아직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기의 최후고신 당시 비행고도가 지상 6.2km나 되고 조종사가 2명인데도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종사의 실수라기보다는 기계결함 가능성이 높다는걸 말해준다.

우리는 이번 사고원인이 완전하게 규명될 때까지 차세대전투기사업은 일단 정지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미래한국 영공수호 주력기가 불량기종이 아닌 큰일이기 때문이다. 보잉사는 전 문법을 보내 사고원인규명에 적극 협조한다지만 대당가격 1천억원, 도합 5조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걸린 사업에 보잉사측이 객관성을 유지하리라 보는건 무리다. 한국 공군은 명예를 걸고 이번 사고원인을 주도적으로 규명하라.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한병선

최근 교권침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일부에서 무관용(zero tolerance) 교육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교육이 우리교육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생활지도에 대한 기본적 접근이 우리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 교육은 뉴욕 경찰의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이론을 교육에 적용했던 클린턴 정부의 정책으로 작은 잘못이라도 엄벌을 통해 '일벌백계'의 교육 효과를 거두자는 목적이다.

우선 무조건 징계하면 된다는 이런 '일벌백계주의'가 교육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의식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까지도 냉소적으로 반증하도록 만들어 모든 것을 무력화 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지도 교육의 현주소이자 가장 큰 문제점이다.

특히 우리의 생활지도 교육은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관용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적 성찰이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섬세한 교육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본적 문제

기고



윤예중

지난 6일 현충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평균 10세대 중 1세대 정도에만 조기가 계약되어 있었다.

주민들의 단점을 깨우기 미안했지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 오전 8시경 경비 관리실에 조기계약을 권유하는 방송을 부탁했다.

잠시 뒤 전체 아파트 300여세대 중 약 30%가 조기를 계약했다. 방송 내용을

20% 정도 계약했고, 상가와 원룸은 단 한곳도 계약치 않았다.

상가주인들을 찾아가 "지금이라도 계약하면 손님을 눈에 잘 보여 장사가 잘될 것 같다"고 했더니 "곧바로 계약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인 내가 조금 발품을 판 것 뿐인데, 아파트 조기 계약률을 3배 정도 올린 셈이 됐다.

올해 월드컵 응원 열기의 절반만이라

월드컵에 문헌 현충일

흘러들거나 무시하지 않고 적극 협조, 조기를 계약해 준 주민들이 101세대나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중 20개는 빛이 바랬거나 조기형태가 아니라 조금 아쉬웠다.

관린인 양해는(56세)씨는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관리 사무소로 태극기를 나눠주면 보관하고 있다가 기념일 등에 국기를 계약하지 않은 세대를 다니며 대신 걸어줄 수 있다"고 했다. 자기들이 대신 계약해주면 미안해서라도 적극 협조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곧 이어 인근 상가와 단독주택 및 원룸을 살펴보니 단독 주택의 경우 약

도 내년 현충일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계약률은 8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조국을 위해 목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유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위로하자는 의미일게다.

호국보훈의 달만이라도 자유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광주고등검찰청 총무과장>

독자마당

토의 시험장에 연필깎이 등 비치했으면

얼마 전 토의시험을 치렀다. 토의시험은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일반 연필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같은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연필을 구입, 책상에서 갈로 깎는 응시생들이 많았다.

토의시험을 치르는 곳은 우리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다. 문제는 응시생들이 시험이 끝난 뒤 교실바닥에 연필을 깔고 난 뒤 부스스기들을 처리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이다.

월요일에 등교한 후배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더럽혀진 책상과 교실을 발견한 뒤 무슨 생각을 할까.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토의시험을 치러면 3만5천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는데, 고사장에 연필깎이를 비치하는 수준의 편의 제공을 해주면 어떻까. 다음달부터 바뀐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나혜성·광주시 서구 서청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Sleepless In Seattle, 1993)이라는 로맨틱 코미디가 있었다. 영화는 톰 행크스와 맥 라이언을 통해 '운명적인 만남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런 '운명적인 만남'은 누구나 한번쯤 꿈꾸어보는 사랑이다.

'월드컵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됐다. 지구촌 사람들은 낯잠을 꼬박 새며 열광할 것이다. 하지만 A부터 H까지, 16강 진출을 놓고 격돌할 팀들의 대진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운명적인' 악연(惡緣)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있다.

제2차 세계대전 초, 독일 전차부대는 개전(開戰) 4일 만에 바르샤바를 짓밟았다. 폴란드는 이제 A조에서 독일과 '죽구 전쟁'을 벌인다. B조의 잉글랜드는 지난 1969년 이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스웨덴과 다시 맞붙는다. 잉글랜드의 에릭슨 감독이 스웨덴 출신인 점도 아이러니다.

잉글랜드는 40여 년간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다가 1975년 독립했다. '원수'를 D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잉글랜드가 식

민지 설움을 풀 수 있을지 궁금하다. 히딩크 감독의 호주는 F조. 축구팬들은 히딩크가 일본의 쿄베를 '납작하게' 눌러 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아트 사커'(Art Soccer) 프랑스는 2002 월드컵 직전 한국과의 친선경기에서 '중원(中原)의 사령관' 지단이 큰 부상을 입었다. 그 뒤를, 세네갈에 패해 16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짐을 싸다. 프랑스는 G조에서 토고를 제물로 함꼐하여 나선다. 토고가 세네갈을 꺾고 본선에 첫 진출한 아프리카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스위스에 2대1로 졌다. 당시 주전이었던 박주영은 독일과 '죽구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가나에 당한 평가전 수모는 토고에 양강을 하겠다는 속내다.

독일 월드컵에선 또 어떤 새로운 악연들이 나올까? 다른 나라엔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우리 대표팀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월드컵 惡緣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 경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채취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덤프트럭 덮개보강, 적재물 추락 예방해야

덤프트럭들이 모래·자갈 등을 적재함에 가득 싣고 거리를 내달리는 것을 가끔 본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려고 경적까지 울리면서 질주하면 주변 승용차 운전자들은 불안하다.

대형 차량인데다 덤프트럭에 가득 담긴 모래·자갈 등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앓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덤프트럭에는 적재물 추락방지용 덮개가

양쪽으로 설치돼 있지만 차량의 운행속도가 빠르거나 도로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 뒤따르는 차량 보닛이나 유리에 적재물이 떨어지 운전자들간 시비가 불기도 한다.

적재물 추락방지를 위해서라도 기존 양쪽으로 설치된 덮개 대신 3면형 덮개(좌·우·뒤)로 보강하면 좋을 것 같다. ▲김선강·광주시 북구 용봉동